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위한 RISE 준비 가속도

전북자치도, 지역 대학 부처장과 협력회의 개최... 사업 세부계획·단위 과제 논의 등 회의 결과 바탕으로 도-시군-대학-산업계 참여 '지역-대학 동반성장 포럼' 개최 예정

전북자치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지역 대학의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협력회의를 열어 사업의 세부계획과 단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에 열린 산업계 공청회와 라이즈 포럼, 교육부 라이즈위원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 수정안이 검토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북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과 연계해 추진하던 8대 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계획을 조정할 것이다.

기준에 분류했던 △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생명서비스 △첨단소재 △친환경모빌리티 △국제문화산업 △웰니스 산업 중에서 생명서비스와

웰니스를 통합하여 '생명서비스·웰니스 산업'으로 재분류했으며, 여기에 IT·소프트웨어, 통신, 게임 등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생활경제권 공간 범위 개념을 도입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시군별 특화산업 연계한 '주력산업 지역밀착형 인재양성' 과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회의 결과를 바탕

으로 도-시군-대학-산업계가 참여하는 추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계획이다.

11월 22일에는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지역-대학 동반성장 포럼'을 열어 지역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수요조사와 대학생 수요조사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기업 1천 곳과 대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에는 △기업의 향후 3년간 채용수요, △필요 역량, △커리큘럼 개선 요구,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RISE 체계 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에게는 △취업 희망분야 △기업선택시 요인 △지역 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조사하여 지역대학생들의 도내 취업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 사업이 성공 하도록 도-시군-대학-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람관에서 열린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ITF)'에 참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만 관광객 유치 박차

'타이베이국제여전(ITF)'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4 타이베이국제여전(ITF)'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지난 1~4일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람관에서 열렸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 기간 전북자치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내 대표 관광지 소개·상담 △현지 언어 제공 관광안내책자 배포 △도내 미식 관광·웰니스 관광 홍보 영상 상영하는 등 대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홍보부스는 전주한옥마을과 전주 향교를 모티브로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해 전북자치도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선보였다.

특히 홍보부스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대만 관광객이 선호하는 전북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또한 방문객이 재단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 즉석 사진 촬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인기를 끌었다.

4일 열린 설명회에는 △삼창(三創), △동남(東南), △이지플라이(易飛網), △보마(寶馬), △세계(世界) 등 대만 주요 여행사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타이베이 국제여전 참가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대만 현지에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마케팅을 통해 도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늘어난 대만 현지 SNS 팔로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지역 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협력회의를 열고 사업의 세부 계획과 단위 과제를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선8기 지시사항 3분기 점검 완료

141건 도시사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모색 지시사항 이행률 89.4%... 신속 이행 위해 연말까지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민선 8기 도시사 지시사항에 대해 2024년 3분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도시사의 주요 업무 지시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정 전반에 걸친 도시사의 지시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시사 지시사항은 모두 141건으로, 3분기 점검 결과 이 중 126건이 완료되었거나 완료 후 지속 추진 중으로 89.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

며, 나머지 15건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유치(12.8%)와 자치행정 분야(11.3%)의 지시사항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

이는 민선 8기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과 맞물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군과의 협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점검에서 완료 처리된 지시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상속

공제 확대'의 정부 반영이다. 전북자치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7월 기획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기업상속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도내 대기업 유치를 발판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반영 철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등 이미 이행 완료된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한편,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15건의 경우 △대법법·의전원법 법안 통과 △새민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는 이 법안들의 제·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시사 지시사항은 지역 내 당면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2024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완료 지시사항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24 세계시민 양성사업' 수강생 모집

18~20일, 기후행동·문화다양성·국제개발협력 등 주제로 강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4 개발협력 인식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 양성사업' 수강생을 모집한다.

'세계시민 양성사업'은 도민이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전문 강사가 △기후행동 △문화다양성 △세계시민 및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업사이클링: 양말북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제로 웨이스트 실천: 팔 손난로 만들기 등이다.

교육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되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교육장(전주상공회의소 5층)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수강신청은 15일까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정책과 대화' 제3차 포럼 개최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 주제로 미래 비전 제시

사법법인 선우재가 주최·주관하는 '정책과 대화' 제3차 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책과 대화 포럼은 '인정과 공감의 민주주의' 정치 문화 형성을 모색하는 대화 공론장으로, 국정의 기획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와 지식인이 만든 민간싱크탱크 정책마루 선우재가 운영하는 상설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정치·행정·경제·산업·경제·복지 등 도정 전반에 대한 김관영 지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방과 중앙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 전반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차 '정책과 대화' 포럼에서 김

태홍 충남도지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행정의 권한 이양을 통해 권역별 연방제, 의원내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제2차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지방분권의 '대전환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현장 정치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김관영 지사의 전북특별자치도 현장 정치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 비전을 발굴해 내고, 정치·산업·경제 각 분야 전문가 패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정책과 사회의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열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자유로운 참석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